

마흔일곱 번째 서신

2022. 04. 08

E-MAIL: you8291@hanmail.net
 카 록 ID: senegal9182
 현지전화: +221 77-438-2749

사진: 이슬람 라마단 금식(4/3-5/2)



* 사역 후원 <KEB하나은행/GMP전채법사역기금> 303-04-0000-4557 * 개인 후원 <KEB하나은행 / GMP전채법> 303-04-00001-692

무슬림 종족 마을 교회 개척사역.

<엔게레 종족마을 교회>

엔게레 교회에 드디어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(할렐루야!!!) 전기가 없을 때도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 저녁 기도모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밝은 전등 아래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모두들 기뻐하며 감사해합니다.

무스타파 전도사와 성도들은 오랜 기도제목이 응답되었다며 감격 해하고 기뻐합니다. 이런 작은 일에도 이토록 좋아하며 감격하는 엔게레 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모습이 마치 어

린 아이와 같습니다. 작은 빛이 주변을 밝혀 선명하게 드러내듯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무슬림들이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.

<빈다콥마을 개척사역>

무스타파 전도사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여러 인근 종족마을들을 순회하며 은혜가운데 생명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.

엔게레 교회와 많이 멀지 않은 빈다콥이라는 마을에 오랜 시간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 최근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정기적인 기도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

아직은 조심스러움이 많은 무슬림 마을이지만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.

이를 위해 수고하는 무스타파 전도사의 건강과 안전(오토바이)을 위해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.



<엔게레 교회 예배와 기도회>



<종족마을 순회 성경나눔>



<빈다콥 마을 복음전도>

사. 품. 항 기도제목 1 :

- 엔게레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여 인근 종족 마을들까지 복음의 생명이 전해지도록.
- 새롭게 개척되어진 빈다콥 마을에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도록.
- 음부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부흥하여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, 예배당 건축의 모든 공정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잘 마무리 되도록.

<음부마 종족마을 교회>

작년 부터 시작된 음부마 교회 예배당 건축이 코로나19와 전쟁(러시아-우크라이나)으로 자재수입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지붕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4개월째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.

현재 음부마 교회는 종족마을 언어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우기철이 되

면 비가 새고 지붕이 약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.

중단된 공사현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미안함, 여러 마음이 올라옵니다.

지붕자재가 속히 공급되어져 우기철이 되기 전에 예배당 건축이 잘 마무리 되어 지고 어려움 없이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



<중단된 예배당 건축 현장>



<음부마 교회 주일예배>

인재 양성 사역 !!!



<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>



< 옥상 콘크리트 타설 준비 >



< 옥상 지붕 작업을 위한 기둥 >



< 실내 미장 작업 >

<은게코 비전센터 건축>

종족마을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와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목적으로 건축이 시작된 은게코 비전센터는 매일 아침 기도와 작은 회의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

벌써 5개월이 지나가면서 무슬림 작업자들에게도 이 기도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.

현재 전체 건축 공정의 50%정도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재 값이 한 주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. 철

근은 벌써 30%이상 올랐고 대부분의 자재들이 30~50%이상 오르며 자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의 속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.

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 은게코 비전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, 그리고 아름답고 튼튼한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것과 함께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좋은 소문들이 은게코 지역에 널리 울려 퍼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< 사역자 제자 양육 >

매달 정기적인 사역자 모

임과 수시 모임을 통해 사역자들을 위한 제자양육과 사역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함께하는 2박 3일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더 깊어만 갑니다. 늘 성령 충만하게 성장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< 사역자 마닉 약혼 >

음부마교회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마닉 형제가 5월에 약혼을 하게 되어 자매와 함께 인사를 왔습니다. 함께 기도하며 꿈과 비전을 나누며 기쁨의 교제와 감사가 있었습니다.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.



< 정기 사역자 모임 / 제자양육 >



< 마닉 약혼자(파푸)와 함께 >

사.품.항 기도제목 2 :

- 은게코 비전센터의 건축의 모든 필요와 모든 공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지도록.
- 세워진 사역자 (장삐에르 목사, 무스타파 전도사, 마닉 형제)들이 성령 충만하도록.
- 마닉 형제의 약혼식을 통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자 가정으로 잘 세워지도록.
- 양성금 선교사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 그리고 하연, 하린이의 건강과 안정, 전재범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.

사.품.항 가족소식

<양성금 선교사 소식>

진통제, 압박붕대, 찜질팩도 소용이 없고 심한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 하던 아내는 3월초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 치료 중에 있습니다..

어깨의 염증은 물론 어깨 유착과 목 디스크 증상으로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여서 예상보다는 치료의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

통증이 가라앉고 회복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.

온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 드리며 마음 써 주신 많은 동역자님과 애써주신 의사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< 가족 >

모든 가족이 별뿔이 흩어져 지내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

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.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사.품.항 가족 모두가 잘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



< 영상으로 만나는 가족 >